

「俛仰亭三十詠」과 自然景物에 대한 美感

- 金麟厚 · 高敬命 · 林億齡 · 朴淳을 중심으로 -

朴秉益*

<차 례>

- 1. 序論
- 2. 면양정삼십영의 吟詠 경위와 성격
 - 2.1 吟詠의 景物題 形成
 - 2.2 吟詠의 創作時期
 - 2.3 吟詠의 性格
- 3. 自然景物 美感: 閒美清適의 風格
- 4. 結論

1. 序論

조선조 중기부터 私亭이 점차 확대되면서 누정의 기능은 자연경관의 완상과 시인묵객들의 교유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호남의 경우는 담양 지역을 중심으로 누정이 발달하였는데, 그 기능과 역할은 시회를 베풀어 시주의 풍류를 즐기면서 시단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¹⁾ 이 시기 호남은 누정을

중심으로 호남가단이 형성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송순²⁾의 누정인 면양정이다.

‘면양정’은 지금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명 제월리 마항마을 뒤의 제월봉 산자락에 위치하였다. 이곳을 드나들던 당대의 시인묵객들이 많은 제영시를 읊었으며,³⁾ 그 중에서 ‘면양정’에서 바라다 보이는 자연경물을 읊은 ‘면양정삼십영’이 있다. 이 작품은 송순의 『면양집』에 김인후(1510~1560), 고경명(1533~1592), 임억령(1496~1568)의 오언절구와 박순(1523~1589)의 칠언절구가 각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문집에도 제목과 편차가 약간씩 다르게 실려 있다.⁴⁾ 또한 조선 선조 때의 의병장인 松巖 梁大樸(1544~1592)의 『靑溪集』⁵⁾에는 오언율시와 칠언율시를 순차적으로 읊은 작품이 「俛仰亭三十詠潭陽宋大憲純別業」라는 제목으로, 李洪男(1515~1572)의 『汲古遺稿』에도 오언절구의 「俛仰亭三十詠爲企村作」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⁶⁾

- 1) 朴俊圭, 「詩壇의 형성과 湖南詩壇」,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참조.
- 2) 宋純(1493~1582) 관향이 新平이고, 자는 遂初며, 호는 俛仰亭 또는 企村이다. 高祖인 宋希環(1376~1446)이 신평에서 전라도의 秋成(지금의 潭陽)으로 이주하여 호남인이 된 연유로 인해서 송순이 潭陽의 鳳山 上德里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修學은 숙향인 知止堂 宋欽, 訥齋 朴祥과 六峰 朴祐, 陵城(지금 陵州) 현감이었던 醉隱 宋世琳에게 배웠다. 中宗 14년(1519) 27세 10월에 別試大科에 登科하였다. 이후 고향을 떠나 77세까지 50년 가까이 내외직을 두루 거치며 부침이 있었으나, 그 이후 14년 동안 향리의 면양정에서 지내다가 宣祖 15년(1582) 2월 세상을 떴으니 당시 나이 90세였다. 지금 묘소는 상덕리의 後山인 無量山 중록에 있다. 시호는 肅定이다.
- 3) 宋純, 『俛仰集』, 『俛仰亭題詠海東名賢錄』, 참고.
- 4) 金麟厚, 『河西集』, 「俛仰亭三十詠」, 高敬命, 『霽峯集』卷之二, 「俛仰亭三十詠」, 林億齡, 『石川集』第五冊, 「俛仰亭題詠」(麗江出版社), 朴淳, 『思菴集』, 「題宋四宰(純)俛仰亭三十韻」. 다만, 林億齡의 『石川詩集』에는 「俛仰亭」이라는 제목 아래 「遠樹炊煙」, 「曠野黃稻」, 「石佛疏鍾」, 「漆川歸雁」, 「二川秋月」, 「七巒春花」, 「松林細徑」 등의 7수가 실려 있다.
- 5) 梁大樸, 『靑溪集』卷之一, 詩, 「俛仰亭三十詠潭陽宋大憲純別業」.

* 조선대학교

「면앙정삼십영」의 연구는 몇몇 논저들에 의해서 영·호남 시풍의 대별 자료나, 호남인들의 자연관을 분석하거나, 호남의 시풍을 서정적인 당풍시로 규정하기 위한 일반적 자료로 활용하는 등 부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다 강희열이 김인후, 고경명, 임억령, 박순의 「면앙정삼십영」을 대상으로 제작경위, 소재목의 분석, 시에 형상화된 주제의식, 호남가단에 미친 영향 등을 일반론에 대한 확인의 수준에서 개략적으로 논의하였다.⁷⁾

면앙정삼십영은 실제적인 정감이나 경물을 보는 듯 완연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자연경물을 형상화한 누정집경시⁸⁾는 시인들이 갖는 사유의 한계에 지배를 받더라도 시인들은 자연경물에 대한 미의식을 포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면앙정삼십영」을 통해 16세기 호남 시단의 맹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임억령, 김인후, 박순, 고경명⁹⁾의 창작배경과 자연경물 미의식을 소략하게나마 규명해 보려한다. 이를 위해 먼저 「면앙정삼십영」의 제작 경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물제의 형성 배경과 창작 시점 및 작품의 성격을 추론하고, 이어서 이들의 내재화된 미감이 경물을 통해 형상화된 풍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16세기 호남 시풍의 특색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단의 전승과 계승 및 당대의 호남 공간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이다. 다만, 양대박과 이홍남의 경우는 『면앙집』의 「俛仰亭題詠海東名賢錄」¹⁰⁾에 실려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남 시단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약간의 거리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2. 「면앙정삼십영」의 吟詠 경위와 성격

2.1. 吟詠의 景物題 形成

정자는 인간이 자연을 만나 완상하며 동화되거나 선취적 세계로의 창구로서 기능을 가졌다. 그러므로 시인묵객들은 경관이 수려한 곳에 정자를 조성하고 그 자연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누정집경시의 景物題는 누정의 주인이 정하거나, 先詠者가 정하거나, 제화시의 경우는 화폭의 화제를 따르거나 특별한 경우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정해졌다.

「면앙정삼십영」의 경물제인 30경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근거를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경물제는 「면앙정」에서 바라다 볼 수 있는 자연경물로 기이함이나 특별보다는 평범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다만, 경물제는 음영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¹¹⁾ 이러한 문제는 대략 우

6) 면앙정에서 본 삼십영을 읊은 작품은 작가에 따라 다르나, 본고에서는 「俛仰亭三十詠」으로 통일한다.

7) 姜熙悅, 「題詠詩 '俛仰亭 30詠' 研究」, 水原大 석사학위논문, 1995.

8) 누정을 중심으로 발표된 詩는 題詠詩의 특징인 누대나 정자 등을 시적 대상으로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누정 주변의 풍광이 아름다운 곳의 풍경을 대상으로 지은 시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누정시라 하고, 후자는 논자에 따라 樓亭題詠, 集景詩, 樓亭集景詩 등으로 명명한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는 「樓亭集景詩」라는 용어로 쓴다. (崔敬桓, 「樓亭集景詩의 장르상의 특성과 作詩 原理」, 『釜山漢文學研究』 16호, 부산한문학회, 2002 참고.)

9)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보면 상기 네 사람이 조선조 16세기 호남을 대표하는 작가로 분류하고 있다. 許筠, 『惺所覆瓿稿』 卷之二十三, 說部二, 惺翁識小錄中, 「湖南人才之浮沈」. 李暉光, 『芝峯類說』 卷14, 文章部, 「試藝」. 李宜顯, 『陶谷集』 卷之二十八, 雜著, 「陶峽叢說 一百四則」.

10) 퇴계 이황으로부터 魚有鵬(1678~1752)까지 31명이 실려 있으나, 위의 두 사람은 없다.

11) 소재목을 김인후의 작품을 기준으로 보면, ①「木山漁笛」은 「木山漁簫」으로, ②「瑞石晴嵐」, 「瑞石晴雲」으로, ③「神通脩竹」은 「心通脩竹」, 「通心脩竹」으로, ④「藝巖孤標」은 「藝巖高標」으로, ⑤「龍龜晚雲」은 「龍龜晚雲」으로, ⑥「竹谷清風」은 「竹塢清風」으로, ⑦「清波跳魚」은 「晴波跳魚」으로, ⑧「七曲春花」은 「七巒春花」로 되어 있다.

리말 지명의 한자화 과정에서, 또는 의미 구현에서, 후대의 刻字 잘못 등이 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秋月翠壁, 龍龜(龍歸)晚雲,¹²⁾ 夢仙蒼松, 佛臺落照, 魚登暮雨, 湧珍奇峯, 錦城杳靄, 瑞石晴嵐, 金城古迹, 瓊巖孤標, 大秋樵歌, 木山漁笛, 石佛疎鍾, 漆水歸雁, 穴浦曉霧, 心通脩竹, 山城早角, 二川秋月, 七曲春花, 松林細逕, 竹谷清風, 平郊霽雪, 遠樹炊烟, 極浦平沙, 曠野黃稻, 前溪小橋, 後林幽鳥, 清波跳魚, 澗曲紅蓼, 沙頭眠鷺

景物題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秋月翠壁, 龍龜(龍歸)晚雲, 夢仙蒼松, 佛臺落照, 魚登暮雨, 湧珍奇峯, 錦城杳靄, 瑞石晴嵐, 金城古迹, 瓊巖孤標, 木山漁笛, 山城早角’은 ‘산이름+경물특징’을, ‘大秋樵歌, 石佛疎鍾, 漆水歸雁, 穴浦曉霧, 心通脩竹, 竹谷清風, 七曲春花’은 ‘마을이름+경물특징’을, ‘二川秋月, 前溪小橋, 清波跳魚, 沙頭眠鷺, 極浦平沙’은 ‘시내와 관련된 곳+경물특징’을, ‘澗曲紅蓼, 松林細逕, 遠樹炊烟, 後林幽鳥’은 ‘숲과 관련된 곳+경물특징’을, ‘平郊霽雪, 曠野黃稻’은 ‘들녘+경물특징’으로 짜였다. 즉, ‘지명으로 제시된 특정지역 + 그 지역의 특색적 풍경으로 제시된 경물의 상태’의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¹³⁾

12) 「龍歸晚雲」은 박순의 『思菴集』에만 유독 「龍歸晚雲」로 쓰여 있는데, 구름의 변화를 용에 비유하여 저녁에 「龍歸」의 본래 의미인 ‘용이 돌아간다’는 의미를 서산 저녁엔 하늘에 그림을 그려내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數點螺鬚忽有無 弄晴披拂態偏殊 高銜落日濃還淡 寫作西山晚色圖)

13) 최경환은 「樓亭集景詩의 장르상의 특성과 作詩 原理」(『釜山漢文學研究』 16호, 부산한문학회, 2002.)에서 樓亭集景詩의 소재목 양상을 ① ‘지명으로 제시된 특정지역 + 그 지역의 특색적 풍경으로 제시된 경물의 상태’, ② ‘지명으로 제시된 특정지역 + 그 지역의 특색적 풍경으로 제시된 경물이나 인물 상태’, ③ ‘지명으로 제시된 특정지역 + 그 지역의 특색적 풍경으로서 제시된 시적 인물의 행위’라는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면앙정삼십영」의 경물제는 면앙정에서 바라보이는 산, 마을, 시내, 숲, 들녘에 대한 특징적 아름다움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자연경관의 즉물적 아름다움을 우선하는 공간인식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자연경물은 시인에게는 갈등이 없는 공간이며 안락함, 한적함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제시된 경물제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송순이 고봉기대승(1527~1572)에게 직접 부탁하여 쓰게 한 「俛仰亭記」를 보면, 경물제의 소재목에 대한 실마리를 유추할 수 있다.

봉우리의 등마루를 따라 내려가면 長松과 무성한 숲이 영롱하게 서로 어우러져 있어서 인간 세상과 서로 접하지 않으므로, 아득하여 마치 별천지와 같다. 빈 정자 안에서 멀리 바라보면 넓은 수백 리 사이에는 산이 있어서 마주 대할 수 있고, 물이 있어서 구경할 수가 있다. 산은 동북쪽에서부터 달려와서 서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이름은 瓮巖山·金城山·龍泉山·秋月山·龍龜山·夢仙山·白巖山·佛臺山·修緣山·湧珍山·魚登山·錦城山 등이다. 바위가 괴상하고 화려하며, 내와 구름이 아득히 끼어 있어서 놀랍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물이 龍泉에서 나온 것은 읍내를 지나 白灘이 되었는데, 꺾어 흐르고 가로질러 줄줄 흐르며, 玉川에서 發源한 것은 이름을 餘溪라 하는데 물결이 너르고 깨끗한 바, 정자의 기슭을 감돌아 아래로 흘러 백탄과 합류한다. 그리고 아득한 큰 들은 추월산 아래에서 시작되어 어등산 밖에 펼쳐져 있는데, 사이에는 구릉과 나무숲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으며, 마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밭두둑이 마치 아로새긴 듯하여 四時의 경치가 이와 더불어 무궁하게 펼쳐진다.¹⁴⁾

14) 奇大升, 「俛仰亭記」, 『高峰集』卷二. “循峯眷延于左右谷 長松茂樹 葱鬱以交加 與人煙不相接 邈然若異境焉 憑虛以望 則曠然數百里間 有山焉 可以對而 搃也 有水焉 可以臨而玩也 山自東北而馳 進遷於西南者 曰瓮巖 曰金城 曰龍泉 曰秋月 曰龍龜 曰夢仙 曰白巖 曰佛臺 曰修緣 曰湧珍 曰魚登 曰錦城 其巖崖之詭麗 煙雲之縹緲 可愕而可嘉 水之出於龍泉者 過府治爲白灘 屈折橫流 汨瀾渟洄 發於玉川者名曰餘溪

인용 부분은 송순이 중종 28년(1533)에 향리인 전라도 담양 企村에 면양정을 짓고 그 곳 자연경물의 아름다움을 직접 구술하고, 기대승은 스승의 설명을 듣고 기록한 내용이다. 여기서 열거한 瓮巖山·金城山·龍泉山·秋月山·龍龜山·夢仙山·白巖山·佛臺山·修緣山·湧珍山·魚登山·錦城山 등은 「倂仰亭三十詠」의 경물제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경물은 송순이 지은 歌辭 「倂仰亭長歌」에서도 엿볼 수 있다.

면양정장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전단은 면양정 주위의 자연의 경물을 휩쓸듯 그린 寫景부분과 후단은 송순의 주관적인 이상을 진솔하게 표현한 造景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경부분인 전단을 보면, 산, 물, 안개, 사계절 등을 특정지명과 함께 열거나 경물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①无等山호환기피히 동다허로버더이서 <中略> ②일곰구비홀머움쳐 므득 므득버렸는듯 가운대구비는 곰기든늘근농이 선좁을긋지야 머리롤안쳐시니 ③너르바회우희松竹을헤혀고 亭子를 안쳐시니 구름튼청학이千里를가리라 두나리버렸는듯 ④玉泉山龍泉山 느린물히 亭子압너븐들히 兀兀히퍼진드시 넘거든기노라 프르거든히지마나 ⑤雙龍이뒤통는듯 긴김을차폄는듯 어드러 로가노라 므슴일 비얏바 들논듯싼로논듯 밤늦즈로호르논듯 ⑥므조친沙汀은 눈긋치퍼졌거든 ⑦어즈러온기러기는 므스거슬어르노라 안즈락느리락 모드 락호트락 蘆花을스이두고 우러곰쫓니는노 <中略> ⑧웃독이섯는거시 秋月山 머리짓고 龍龜山鳳旋山佛臺山魚登山 湧珍山錦城山이 虛空에버러거든 遠近 蒼崖의 머튼것도하도할샤. 흰구름 브흰煙霞 프로니는山嵐이라 千巖萬壑을 제집으로사마두고 나명성들명성 일히도구는지고 오르거니느리거니 長空의 떠나거니 廣野로거너거니 프르락불그락 여트락지트락 斜陽과섯거디어 細雨 조츠싸리난다 <中略> ⑨술이뢰구분길로 오며가며 호는적의 綠楊의우논黃鶯 嬌態겨워호는고야 나모새즈즈지어 綠陰이얼린적의 百尺欄干의 긴조으름 내 여퍼니 水面涼風)이아 긋칠줄모르논가 ⑩즌서리빠딘후의 산밧치 금슈로다

黃雲은뜨엇지 萬頃에편커기요 ①漁笛도홍을계워 돌물싼파브니는다 ②草木 다진후의 江山이미물커늘 造物이현스호야 氷雪로꾸며내니 瓊宮瑤臺와 玉海 銀山이 眼底에버러세라. 「倂仰亭長歌」

인용한 「면양정장가」는 무등산 줄기가 한 순간에 제월봉으로 뻗어 내려 올 듯한 힘찬 움직임과, 산봉우리들이 넓은 들판을 끼고 불쑥 솟아 오른 모습이 웅트림하며 꿈틀거리고 움직일 것만 같은 생동감이 흘러넘친다. 냇물은 들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모습을 때로는 용으로, 때로는 수려한 비단 폭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북 방면으로 추월산에서부터 이어지는 산세는 높은 듯, 낮은 듯, 이어진 듯, 숨기는 듯하다.

이 부분은 앞서 제시한 「면양정기」와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면양정 삼십영」의 특정지명과 경물특징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대비시켜보면, ①은 瑞石晴嵐, ②는 七曲春花·石佛疎鍾, ③은 竹谷清風·通脩竹·遠樹炊烟, ④와 ⑤는 二川秋月·清波跳魚·前溪小橋, ⑥는 極浦平沙·沙頭眠鷺·穴浦曉霧, ⑦은 漆水歸雁, ⑧은 秋月翠壁·龍龜晚雲·夢仙蒼松·佛臺落照·魚登暮雨·湧珍奇峯·錦城杳靄·金城古迹·瓊巖孤標·山城早角, ⑨는 松林細逕·後林幽鳥·澗曲紅蓼, ⑩은 曠野黃稻, ⑪은 大秋樵歌·木山漁笛, ⑫는 平郊霽雪 등과 서로 상사성을 지닌다.

이렇듯 「면양정삼십영」은 「면양정장가」의 ‘특정지명+경물특징’을 借景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기대승의 면양정기에 송순은 자세하게 그 경치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면양정삼십영」의 경물제는 이미 송순이 설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을 토대로 창작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면양정삼십영」의 작가들에 의해서 형상화된 경물제는 송순의 의도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들은 누정에서 바라다 보이는 경치, 경물들 가운데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객관적인 경물 자체의

漣漪澄滢 廻帶亭簷下 合於白灘 蒼茫大野 首起於秋月山下 尾撇於魚登之外 間以丘陵林藪 錯如圖畫 聚落之雜襲 丘求之刻鏤 而四時之景 與之無窮焉” 다시 10년 후에 「면양정기」를 쓰는데, 이는 처음 것을 손질하여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들이라 생각된다.

2.2. 吟詠의 創作時期

『면앙집』에 실린 「면앙정삼십영」은 특별한 설명이 附記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김인후, 고경명, 임억령, 박순의 작품이 배열되어 있다. 또한 「倂仰亭題詠海東名賢錄」에는 제영자의 순서를 退溪, 河西, 陽谷, 梧陰, 石川, 高峯, 玉溪, 思菴, 白湖 등으로 실려 있다. 만약 연령순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임억령, 김인후, 박순, 고경명의 순으로 작품이 실려 있어야만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송순과 네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그렇다. 임억령은 송순과 함께 놀재 박상과 그 아우 육봉 박우에게 동문수학한 사이이다. 김인후는 14세에 송순에게 문학수업을 받았다고 추정된다.¹⁵⁾ 고경명은 송순과 사돈관계이면서 문학 세계를 간접적으로 수용하였다. 박순은 육봉 박우의 아들이며, 놀재 박상의 조카로 송순에게 있어서는 스승의 자식이며 조카이다. 그러므로 친소관계를 따져 보아도 문집에 배열된 순서는 연령순과 동일해야 한다. 이 문제는 네 사람의 창작 시기를 추론하면 그 연유를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왕의 「면앙정삼십영」 창작 시기에 대한 견해는 면앙정 송순이 59세(1551년)에 謫居생활에서 풀려난 후 다음해인 1552년 吳謙(1496~1582)의 권유로 정자를 개축하고 이 해에 임제, 기대승, 김인후, 고경명, 박순 등이 시를 지어 축하하기 위해 지었다는 견해¹⁶⁾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강희열은 차운하지 않았고, 화답형식도 아니므로 개축하던 날 한꺼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송순의 생전에 정자를 출입하면서 개별적으로 창작했

다고 추론하였다.¹⁷⁾ 또한 이종묵은 송순이 1569년 77세의 나이로 치사하였는데, 그 이전에 받아둔 것으로, 치사후 송순이 면앙정에 머물 때는 이 「면앙정삼십영」이 정자에 내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론하였다.¹⁸⁾

이러한 논의의 중심은 ‘면앙정’과 연관 짓고 있다. 필자는 관점을 확장하여 송순의 면앙정장가 와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항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물제 배경이 형성된 이후에야 「면앙정삼십영」이 창작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앙정장가」와 「면앙정삼십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전제하에서 「면앙정장가」의 창작 시기를 추론한다면, 「면앙정삼십영」의 창작 시기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⁹⁾

면앙정장가 의 제작 시기는 40대 전반 제작설과 70대세 전반 제작설의 서로 다른 두 견해가 있다. 송순의 나이 40세에 접어들던 중종 27·8년 무렵은 金安老가 득세하여 賢流들을 배척하고 모진 화를 끼친 때였다. 송순은 이에 분개하여 그를 지탄하고, 벼슬의 뜻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적이 있다. 그의 시조 「傷春歌」는 이때의 세태를 우의적으로 풍자한 것으로 유명하다. 귀향한 그는 제월봉 언덕에 정자를 짓고, 앞에 든 「倂仰亭三言歌」로써 자신의 뜻을 노래하였는데, 이때에 「면앙정장가」도 함께 이루어진 것²⁰⁾이라 한다. 이는 면앙정장가 의 내용을 분석하여 송순의 행적과 연관 지은 결과이다. 하지만, 「면앙정기」의 내용과 관련지어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²¹⁾

15) 趙麒永, 『河西詩學과 湖南詩壇』, 국학자료원, 1995, 19쪽.

16) 金成基, 「宋純의 歌詞文學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1990. 33쪽; 이종건, 「면앙정송순연구」, 개문사, 1987를 참고.

17) 姜熙悅, 「題詠詩 ‘倂仰亭 30詠’ 연구」, 수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6쪽.

18) 이종묵, 「세월을 보내는 집 송순의 면앙정」, 『문화담양』 15호, 담양문화원, 2006. 26쪽.

19) 「면앙정장가」와 「면앙정삼십영」의 선후문제는 다른 견해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필자는 계승성을 전제로 하여 견해를 제시하였다.

20) 朴俊圭, 「倂仰亭 宋純과 그의 詩歌」,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출판부, 1998. 272쪽.

송순이 면양정을 축실한 1533(41세, 중종 28)년에는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면양정장가」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해배 이후에 향리에 은거한 경우라도, 1533년 김안로에 의한 향리의 소오보다는 1550년(경술년)에 陳復昌 · 李芑 등에게 논박당하여 충청도 서천으로 유배되다가 평안도 순천으로 옮긴 사건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51년(신해년)에 放免되고 남향하여 은거하다가 오겸의 도움으로 1553년에 중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면양정은 본격적인 문인사대부의 교유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생각된다.²¹⁾ 따라서 「면양정삼십영」 창작 시기도 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양정이 증축된 1553년 이후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인후, 임억령, 고경명, 박순은 언제 창작하였으며, 처음으로 음영한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김인후의 「前溪小橋」를 보자.

歲晚橋仍理 세모까지 다리를 자주 고치니
東西利往來 동서로 다니기에 편리하였네
農漁先最切 농부와 어부 가장 절실하였지
日夕去還廻 밤낮으로 갔다 왔다 하기에

면양정 앞 시내의 작은 다리에 대한 효용성을 읊은 작품이다. 다리는 강이라는 단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을 의미한다. 그래서 화자는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다리에 기층민들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효용성을 형상화하였다. 기구에서 ‘면양정’ 정자 앞에서 세모까지 여러 번 다리의 개축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전제로 나머지 구에서 造景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김인후는 구체적 사실을 직시하며 경물제에 대해 음영하였다.

김인후는 39세인 1548년에 순창 점암촌에 우거하면서 오직 도학에 열중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이후에 양산보의 소쇄원, 송순의 면양정, 성수침의 파산 등 승경을 유람하였다. 이러한 행적을 통해서 보면, 그가 이 작품을 창작한 시기는 1553년 면양정이 증축된 이후 그가 歿한 1560년 사이에 창작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김인후의 작품은 나머지 세 사람의 작품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자연경물 현장성을 생생히 전달한 작품이다. 고경명은 「石佛疎鍾」에서 그의 창작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蕭寺煙蘿外 쓸쓸한 절 무성한 넝쿨 밖으로
霜鍾數杵疏 새벽 종소리 몇 공이 성글다.
十年憂國念 십년을 나라 걱정하는 생각뿐이었는데
深省定何如 깊이 생각하네, 정말 어떻게 할까

석불사의 성근 종소리를 통해 화자의 내면세계를 표출한 작품이다. 전 · 절구에서 고경명은 10년을 나라 걱정으로 가득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 그는 1563년에 삼사가 이조 판서 李樛를 논핵할 때 이를 미리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좌천되었다가 蔚山 郡守가 된 뒤 곧 파직되었다. 그리고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19년 동안 은거하다. 특히 1572년 그의 나이 40세에 송순을 찾아가 시를 수창하다. 이 때 송순은 나이가 80세이다. 또한 『제봉집』에도 대개 1562년에서 1565년 사이에 지은 작품들 사이에 「면양정삼십영」이 실려 있다.²²⁾ 따라서 고경명이 「면양정삼십영」을 창작

21) 본고는 이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둔다.

22) 奇大升, 「侂仰亭記」, 『高峰集』卷二. “公爲余言曰 昔亭之未有也 有郭姓者居之 嘗得異夢 見金魚玉帶學士 聯翩盞簪於其上 意其家之將有興 而謂其子之膺是夢也 託之僧以學書 及其無成而且窮也 乃伐其樹而遷其居 僕於甲申年間 以財貨之 里人競來相賀 曰 以茲地之奇勝 而公乃得之 豈郭之夢 有所兆朕者歟 僕亦愛其溪山之勝 而繫官在朝 不敢引身 癸巳歲 遞職還鄉 始縛草亭 以蔽風日 優遊五載 旋復棄去 則亭不免爲風雨所揭 獨樹陰婆娑 而草萊蕪沒矣庚戌 謫關西 揣慄窘束 百念不掛 猶以未克葺亭以終老 爲恨也 辛亥 蒙恩放歸 宿昔之抱 可以少償 而財力短乏 又無以爲計 一日 府使吳公謙 適來同登 勸僕成之 且許相助 遂於壬子春 起其役 不幾月而功訖 ”

한 시기는 적어도 1563년에서 1565년 사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임억령의 경우도 「石佛疎鍾」에서 창작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十載爲朝士 십 년 동안 조정의 벼슬했더니
聞鍾夢每驚 종소리만 들려도 잠에서 매번 놀란다
如今林下睡 지금같이 산림에서 쉬는데도
何似昔年聲 어찌 옛날 들던 소리와 같은가.

석불사의 성근 종소리를 통해서 내재적 세계를 표출한 작품이다. 즉 종소리는 내재적 심상을 환기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 역할을 수행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체이다. 10여년간 벼슬살이를 하다가 산림에 묻혀 있지만, 시인의 마음은 항상 환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종소리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한다. 이로 보면, 임억령이 1525년 30세의 나이로 식년시에 등과한 후 34세에 휴가를 얻어 귀향한 후 50세인 1545년에 을사사화로 아우 임백령과 갈등으로 사직을 하고 귀향한다. 그러자 52세인 1547년에 사위인 金成遠(1525~1597)이 창평 성산에 棲霞堂을 짓고, 임억령은 거기에 은거한다. 다시 57세인 1552년에 동부승지로 출사하여 64세인 1559년 담양현감으로 물러나기까지 8년간 환로에 있었다. 이후 서하당에 거처하면서 김인후·송순과 수창(1560년)하기에 이른다. 이로 미루어보면, 서하당 거주시기였던 1560년대에 창작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박순의 경우는 제목이 「題宋四宰(純)侂仰亭三十韻」으로 송순이 四宰를 지낸 이후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四宰는 의정부의 '우참찬'을 달리 이르던 용어로, 송순의 四宰 시기를 추론하면 박순의 창작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송순의 연보에 의하면, 77세인 1569년에 우참찬에 이르렀고 이 해에 병으로 치사하여 향리에 머물렀다. 박순은 이후 1571년(49세) 1월에-송순의

나이는 79세- 실록봉안을 위해 호남을 방문하면서 휴가를 얻어 선영을 성묘하였다. 이해 10월에 의정부 우찬성에 제수되었다. 아마도 이때에 송순이 고향에 머물렀으므로 박순이 방문하여 수창했을 것으로 추론되고, 면양정삼십영」도 창작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작품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면양정삼십영」은 1553년 면양정이 중진된 이후 창작되었으며, 최초의 음영자로는 김인후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김인후는 1553부터 1560년 사이에, 임억령은 1560년 즈음에, 고정명은 1562년에서 1565년 사이에, 박순은 1572년 즈음에 창작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장감을 살린 김인후의 작품의 최초의 음영자라고 추론할 수 있다.

23 吟詠의 性格

대체로 시인들은 누정의 주인이나 경영자의 청을 받고 시인이 누정집경을 짓게 된다. 지을 경우, 시인들이 시를 짓게 된 동기는 누정의 주인이나 경영자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시인은 누정의 주인이나 경영자와 교유를 위해서고, 주인이나 경영자는 누정의 존재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었다.²⁴⁾ 그러나 「면양정삼십영」의 경우에는 음영자들의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면, 면양정의 주인인 송순에 대한 존경을 엿볼 수 있다. 먼저 김인후의 작품을 보자.

瑞石含崑彩 서석이라 곤산의 옥빛을 머금어
蔥籠拱北辰 푸르른 빛은 북두성을 떠받들었네
松梢遙隱映 솔가지 멀리 은은히 비치니

23) 고정명, 『霽峯集』.

24) 崔敬桓, 「樓亭集景詩의 창작동기와 누정의 공간적 특성」, 『동양한문학회』 제22집, 동양한문학회, 2006, 379쪽.

勝致屬高人 좋은 풍경 고고한 사람에 맡겼네
金麟厚, 「瑞石晴嵐」

김인후는 면양정에서 아스라이 바라보이는 무등산의 서석대에서 피어오는 아지랑이를 묘사하고 이어서 이러한 경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高人'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高人'은 그야말로 벼슬을 사양하고 세상 물욕에 뜻을 두지 아니하는 고상한 사람으로 송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기·승구에서 곤산의 옥빛을 머금고 天球의 중심축인 北辰을 떠받드는 주체는 무등산 서석대이다. 여기서 북선은 북극성으로 임금의 상징하고 서석은 항상 하늘을 떠받드는 신하이다. 그러므로 서석과 송순을 환치할 수 있는데, 서석과 같이 행하는 모습이 바로 고고함이다. 따라서 송순이 항상 임금을 그리워하면서도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는 모습을 흠모하는 김인후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贊皇空好石 찬황은 괜스레 보석만 좋아하여
珍怪費幽探 진기한 것만 몰래 찾으려 허비했네
坐對雙尖秀 두 빼어난 봉우리 앉아서 마주하노니
知公寶不貪 그대는 아는가, 보배는 탐하는 것이 아님을
高敬命, 「湧珍奇峰」

고경명은 용진산의 기괴한 봉우리를 형상화하여 물욕을 쫓는 세태를 기·승구에서 비판하고 전·결구에서는 화자가 제삼자의 거리에서 대상의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경구를 강조하고 있다. 기구의 찬황은 唐代의 명신인 李德裕(787-849)를 가리키는데, 그는 贊皇人으로 돌을 좋아하였다. 특히 담양의 소쇄원은 이덕유가 경영하던 '平泉莊'과도 크게 닮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련 사실로 미루어 보면, 용진산의 기이한 봉우리는 보배가 아니라, 자연 자체로서 완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면양정

정자에서 바라다보면 그뿐이다. 그것을 욕심낼 필요는 없다. 송순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고 언명하고 있으며, 그 점을 고경명은 흠모하고 있다.

傳聞孤竹子 전해 듣건대, 고죽군 자식들은
餓死西山谷 서산 계곡에서 굶주려 죽었다지
眞箇聖之淸 진실로 성인의 청렴은
使人膚起粟 사람에게 소름끼치지
林億齡, 「竹谷淸風」

임억령은 '竹'을 통해 고죽군의 두 아들인 백이와 숙제의 지조와 '淸貧'을 연상하고, 그들의 삶의 태도인 청빈한 삶을 흠모하였다. 이는 단순히 시인이 두 대상에 대한 흠모의 정을 표출하기보다는 누정의 주인이며, 동학이었던 송순의 삶의 의식을 간접적으로 형상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억령은 친구이자 동학인 송순의 청빈한 삶이 사람들에게 소름끼칠 정도였음을 상기하고, 흠모한다.

鐵作蒼崖立半天 쇠로 만든 듯 푸른 벼랑 중천에 서 있고
層城雲日望依然 겹겹이 구름 낀 날 바라보니 의연하네
他年倘得從公後 훗날 만약 공의 뒤를 따를 수 있다면
萬丈丹梯尚可緣 만장 붉은 사다리를 그래도 오를 수 있겠지.
朴淳, 「秋月翠壁」

박순은 추월산의 푸른 석벽을 통해 송순의 의연한 자세를 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준거를 생각하고 있다. 기·승구에서 추월은 푸른 가을 하늘에 높이 걸려 있는 가을 달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고 여기에 '취벽'이 푸른색을 더함으로써 깨끗하면서도 영원의 이미지가 결합하였다. 결구의 만장이나 긴 '丹梯'는 세속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화자는 세속과 단절된 세계에서 의연하게 사는 당신처럼 살겠노라고

언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삶은 바로 平郊霽雪에서도 ‘閑披鶴覽吟清景 肯學袁安臥寂寥(한가히 눈을 맞으며 깨끗한 경치 읊조리고, 기꺼이 원안을 본받아 적막 속에 지내겠네.)’라고 다시 읊조리고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암은 만년에(1586년)에 永平縣 白雲溪에서 은거할 집을 짓고 致仕하기에 이른다.

결국 내용의 면면에 흐르는 정조와 시적화자의 의도 속에 나타난 태도는 송순의 흠모와 존경의 대상이었다. 네 사람이 시에서 승화시킨 송순의 덕목은 고고하면서도 의연한 자태, 물욕을 도외시하여 청빈한 삶을 사는 선비정신이다. 즉, 송순은 정자에 아름다운 자연경물을 발견하여 「면양정삼가」를 읊었고, 이에 대해 당대의 호남 시인으로써 문명을 날리던 네 사람은 그의 삶의 자세와 덕망을 흠모하여 「면양정삼십영」을 창작하여 ‘奉呈’했던 작품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누정집경시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인 단순 교유나 누정을 알리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3. 自然景物 美感：閒美淸適의 風格

자연경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는 일반적으로 객관화된 자아로 대상을 관찰하느냐, 주관적인 자아로 대상을 형상화하느냐에 따라 그 표현 양식과 주제 의식은 달라진다고 생각된다. 즉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인식의 대상인 자연을 어떠한 개념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움의 표출은 달라진다. 특히 이미 주어진 글감을 대상으로 하는 누정집경시는 음영자의 사유관에 따라 대상의 표출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시인의 기호나 취향에 따라 동일한 경물은 서로 다른 묘사나 양상으로 나타난다.²⁵⁾

25) 누정집경시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창작될 경우에는 일반적 작시관습을 간과할 수 없다. 後詠者는 최초 吟詠者에 의해서 창작된 작품이나 앞서 지어진 작품으로부터

「면양정삼십영」은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으로 ‘면양정’의 자연경물을 최대한 살려 읊고 있다. 전항에서 보았듯이, 자연경물제가 갖는 특성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이들의 시는 자연자체의 아름다움과 청아함이 자연스럽게 어울렸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자연경물 미감을 읊곡 李珣는 ‘閒美淸適’의 풍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가 찬한 『精言妙選』²⁶⁾에 「亭字集」의 序에 보면,

형자집에 “이 집이 가려 뽑은 것은 閒美淸適을 주로 하였는데, 조용히 자득하여 寓興을 표출하였으니 사색하여도 이를만한 것이 아니다. 이 집을 읽으면 마음과 기운이 평온하여 작은 수레를 탄 것처럼 마음대로 화초사이를 다니고 세력과 이권이 번성하여도 보기를 멀리한다.”고 하였다.²⁷⁾

작품의 대상에 대한 표현과 감상이 어우러진 풍격용어로 ‘閒美淸適’으로 표현하고 있다.²⁸⁾ 이는 ‘閒美’와 ‘淸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閒美’는 조용히 자득하여 寓興으로 표출한 것을 말하고 ‘淸適’은 독후에서 얻어지는 ‘心平氣和’을 말하였다. 특히, ‘閒美’는 ‘天氣澄和 風物閑美’²⁹⁾와 ‘山水閑

자유롭지 않다. 後詠者는 경험을 통해 획득한 경물의 진경을 인식했는지라도 선영자의 작품에서 묘사되고 형상화된 이미지를 크게 의식할 수밖에 없다.

26) 元字集은 ‘冲澹蕭散’, 亭字集은 ‘閒美淸適’, 利字集은 ‘淸新灑落’, ‘貞字集’은 ‘用意精深’, 仁字集은 ‘情深意遠’, 義字集은 ‘格詞淸健’, 禮字集은 ‘精工妙麗’의 풍격에 해당하는 작품이 실려 있고, 智字集은 缺落되었다.

27) 李珣, 『栗谷先生全書拾遺』卷之四, 雜著一, 『精言妙選總敘』, “亭字集曰 此集所選 主於閒美淸適 從容自得 出於寓興 非思索可到 讀此集則心平氣和 如乘小車 隨意行于花蹊草徑 而勢利芬華 視之邈矣”

28) 이에 대해 鄭載喆의 『精言妙選』의 사유체계 및 심미의식, 『韓國漢文學研究』34輯, 한국한문학회, 2004.)과 金炳國의 「한미정적의 미적 특질-『精言妙選』소재 한시를 대상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를 참고.

29) 陶潛, 「遊斜川」詩序, “辛酉正月五日 天氣澄和 風物閑美 與二三鄰曲 同遊斜川 臨長流 望曾城 魴鯉躍鱗於將夕 水鷗乘和以翻飛 彼南阜者 名實舊矣 不復乃爲嗟歎 若夫曾城 傍無依接 獨秀中臯 遙想靈山 有愛嘉名 欣對不足 率爾賦詩 悲日月之遂往 悼吾年之不留 年疏年紀鄉里 以記其時日”.

美³⁰⁾를 예시하였는데, 이는 ‘閒美’가 풍물과 산수의 여유롭고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시인이 자연을 ‘興’으로 표현할 때 얻어지는 아름다움인 평안한 마음이 ‘淸適’이다. 여기서 ‘興’은 자기 안에 쌓인 감정이 우연히 자연경물과 서로 촉발되었을 때 안에 쌓인 감정을 끌어내는 것이다.³¹⁾ 결국 ‘閒美淸適’은 자연경물의 객관적인 서술을 통해 자연미의 아름다움을 독자들에게 상상할 수 있게 해 주면, 이로 인하여 자연경물과 관련된 시인들의 인정에 공감하여 마음의 평화로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³²⁾

자연경물의 형상화는 실제의 경치를 묘사한 寫景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造景으로 분류한다.³³⁾ 그러나 ‘閒美淸適’의 미감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은 사경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다. 이에 동일한 경물제 작품과 개별 작가의 경물제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吟詠者들이 동일한 경물제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①半夜龍頭麓 한밤중 용머리 기슭은
透迤向此間 구불구불 이쪽을 향했네
曉來時出沒 새벽이면 때로 보일락 말락
造物不曾閑 조물주도 한가롭지 못하네

②橐籥長川曉 풀무질에 긴 내 밝아지니

空濛大塊噓 어둑한 기운 대지가 뿜어내네
澆書時俯檻 새벽 마시며 때로 난간에 기대
一笑混元初 한번 웃으니 천지의 시작하네

③蒼起川中霧 푸르름 이는 건 냇가에 운무요
紅沈屋角嗽 붉게 물든 건 집모퉁이 아침해네
輕風須掃去 가벼운 바람 씻은 듯이 지나가니
短景恐催昏 짧은 해 저녁을 재촉할까 걱정이네

④浦口朝朝白霧深 포구에는 아침마다 흰 안개 짙어
幾家松竹入平沈 몇몇 집의 솔 대 잠겨들었네
閒看大塊蒸噓變 대지의 증기 뿜은 변화 한가히 보면서
却笑公超枉費心 도리어 공초가 쓸데없이 마음 씀을 비웃네
「穴浦曉霧」

穴浦曉霧는 면양정에서 내려다보이는 광산현(지금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쪽에 흐르는 穴浦³⁴⁾의 새벽안개를 소재로 하여 쓴 작품이다.

①은 김인후의 작품으로 혈포에 낀 안개를 통해 새벽녘의 변화를 형상화하였다. 기·승구는 안개가 용머리 기슭부터 혈포까지 낀 상태를 ‘굽이굽이 흐르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전·결구에선 조물주의 조화에 대한 외경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구성은 선경후정의 표현법으로 그림처럼 정지된 상태가 아니다. 안개는 밤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다. ‘透迤’와 ‘出沒’은 靜中動을, 그러면서도 결구의 운자 ‘閑’를 넣어 아름다움과 함께 한적함을 느낄 수 있다.

②는 고경명의 작품으로 새벽의 맞이하는 시인의 흥을 잘 형상화하였다.

30) 叶括(宋), 『沈氏萱竹堂記』. “瑞安 鹽聚漁合 而北湖 背市遠人 山水閑美 游者恨不得居而久也”

31) 徐復觀(권덕주 역), 『중국예술정신』, 동문선, 1990. 258쪽.

32) 金炳國, 「한미청적의 미적 특질-『精言妙選』 소재 한시를 대상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94쪽. 이러한 풍격은 왕국유의 『人間詞話』에서 말했던 관물적 태도에서 ‘以物觀物’의 특징을 형상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33) 王國維, 『人間詞話』. “有造境 有寫境 此理想與寫實二派之所由分 然二者頗難分別 因大詩人所造之境 必合乎自然 所寫之境 亦必鄰於理想故也”

34) 『新增東國輿地勝覽』(제35권)의 「光山縣·山川」條의 에 “칠천의 동쪽으로 흐른다.” 하였고, 「潭陽都護府·山川」條에 “龍淵에서 나와 府를 싸고 북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昌平縣의 竹綠川과 합하여 光山의 穴浦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현재 광주 광산 쪽에 있는 내가 흐르는 작은 포구임을 알 수 있다.

기·승구에선 새벽녘 막 동틀 무렵 혈포에서 일어나는 운무를 '曉'와 '濛'의 대비를 통해 시간의 변화와 '어둠'에서 '밝음'으로 진행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또한 대지의 어둠을 밝음이 밀어내는 풀무질의 형상화는 새벽의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쉽게 사상할 수 있게 한다. 전·결구에서는 난간에 기대어 대지의 밝아오는 모습에 즐거움을 갖는 시적화자의 행위를 잘 드러냈다. 즉 승구에서 '空濛'이라는 밤이 결구에서 '混元'이라는 새벽의 '初'로 전이가 그것이다. 이에 시인은 시적화자의 감정을 '一笑'로 표현하여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마음이 즐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한다.

③은 임억령의 작품으로 안개 낀 아침이 늦게야 걷히니 짧아진 하루에 대한 아쉬움을 잘 형상화하였다. 기·승구는 '푸르름[蒼]과 '붉음[紅]'의 색체적 대비는 아침에 안개 속에서 해가 서서히 드러내는 모습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났다. '안개'와 '해'의 대비는 곧장 맑게 갠 하늘의 청아한 모습과 시간적 진행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전구의 가벼운 바람도 청아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지만, 결구의 '짧은 햇빛'은 오랫동안 안개가 낀 상태이기에 하루 동안 계속될까 걱정하는 화자의 긴장감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안개 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통해 청아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④는 朴淳의 작품으로 새벽에 낀 안개의 변화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기·승구에서 온마을에 안개가 끼어 하얗게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형상화하였다. 특히 '白霧'와 '松竹'의 간접적 대비는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보다 신비감에 쌓인 세계를 느끼게 한다. 전구는 대지에서 서서히 걷히는 안개 속의 변화를 보면서 한가로운 여유를 즐기는 화자를 엿볼 수 있다. 결구는 공초의 고사 오리무중을 조소하고 있다. 공초는 張楷의 字이며 후한 順帝 때 학자로 도학이 뛰어나 문도가 항상 100명을 웃돌았다. 그러나 그는 화음산 기슭으로 낙향하였는데, 도술에도 능하여 쉽게 '五里霧'를 만들었다고 한다.³⁵⁾ 즉 변화를 위한 도술은 자연스러움이 아니다. 그냥 있어도 자연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준다. 바로 화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白', '閒'의 시어는 한가로움과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고, 변화의 중심에 선 안개의 형용은 천변만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가하고 있다.

이 네 편을 통해서 음영 경물제의 활용을 보면, 김인후는 '穴浦'와 '曉霧'의 균형을 유지하였고, 고경명은 '曉霧'에, 임억령은 '霧'에, 박순은 '穴浦'와 '霧'에 중점을 두고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화 방법은 개인의 시적 취향일 뿐 주제나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할 때 玩物喪志에 이르지 않았다. 어찌면 자연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삶의 일부로 느껴지게 한다. 또한, 그들은 대상을 선경후정의 표현기법으로 절제된 생략과 함축, 비유와 묘사 등은 자연경물의 아름다움을 평소 느꼈던 감정과 기쁨을 들뜨지 않고 차분히, 그러면서도 긴장된 화자의 감정을 흥이라는 기법을 통해 잘 형상화하고 있다.

이제 개별 작가의 경물제를 살펴보자.

秋月山名好 추월은 산이름도 좋거니와
蒼蒼削四圍 질푸르게 사방에 솟구쳤네
溪雲莫漫起 시내구름 부질없이 일지마라
夜夜輒清輝 밤마다 밝은 달빛 뒹굴게
金麟厚, 「秋月翠壁」

이 작품은 '추월산의 푸른 절벽'을 보고, '가을 달[秋月]'을 연상하여 그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추월산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潭陽都護府」條에 “부의 동북쪽 20리에 있는 鎮山이다. 石壁이 깎아 세운 듯 사방으로 둘러는데 마치 성과 같다. 둘레가 9천 18자요, 서북방으로만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시내가 둘러 흐르고 또 13개소의 샘이

35) 『後漢書張楷傳』 참고.

있다.”³⁶⁾고 하였다.

기·승구는 추월산의 푸른 바위가 창창하게 사방으로 솟구친 모습을 묘사한 ‘景’의 부분이다. 화자는 전·결구에서 부정적요소인 시내 구름과 밝은 달빛의 대비를 통해서 ‘추월적벽’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면서 화자의 ‘情’을 드러내고 있다. 즉 전반부는 낮을, 후반부는 밤을 묘사함으로써 밤낮으로 추월적벽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秋月’과 ‘清輝’는 청아함과 한가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김인후의 시창작이 주로 대상인 객관경물과 주관정의 교응으로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흥취나 심상은 실제경물을 바탕으로 하여 과장되거나 축소됨이 없으며,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진솔한 표현에 주력하고 있다.³⁷⁾ 「면앙정삼십영」에서는 이러한 그의 시인식 태도가 그대로 드러남을 엿볼 수 있다.

石屏銜落照 병풍처럼 두른 석벽이 낙조를 머금어
西望正悠悠 서쪽으로 바라보니 정말로 아스라하네
鵝背金爭閃 까마귀 등은 금빛으로 번쩍이고
波光汞欲流 일렁이는 빛은 수은처럼 흐르려 하네
高敬命, 「佛臺落照」

고경명의 작품으로 불대산에 비치는 낙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불대산은 珍原縣(지금 장성군)에서 북쪽으로 5리 떨어져 있는 진산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珍原縣」條에 “풍수하는 사람이 산에 달리는 용의 형세가 있다고 하여 절을 세우고 上下淵이라 일컬고 산세를 다스렸다. 또 산의 동북에 큰 골짜기 작은 골짜기가 있는데, 신라 때에 3절을 세워서 安龍·定龍·靑龍이라고 하였다는데 지금은 모두 상고할 수 없

다.”³⁸⁾고 하였다. 이처럼 불대산은 산세의 아름다움과 함께 불교적 전설을 지닌 산이다.

기구에서 불대산의 석벽에 낙조가 비친 모습을 實景으로 표현하고, 승구는 화자가 면앙정에서 불대산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니 멀리 보인다고 하였다. 전·결구에선 불대산이 낙조를 띤 모습을 검은 바위에 햇빛을 받은 모습이 까마귀 등에 금빛이 번쩍이는 모습으로, 거기에 반사되는 빛이 수은처럼 일렁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불대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한적함과 여유로움이 넘실대는 작품이다.

고경명의 시세계에서 일반적 자연경물의 포출은 시인 내면의 희열도 전리를 인식함에서 오는 고양된 정신경계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심미적 흥취이다. 시절에 따르는 자연경물과 그 속에서 생명적 일체감을 맛보는 조용한 희열이 진솔하고 평담하게 포출되어 있다.³⁹⁾ 이 시에서도 자연경물에 대한 평담한 포출이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野遠茫難辨 들 멀리 망망하여 분간하기 어운데니
千雲散作霏 많은 구름 흩날리다가 자욱히 이네
落霞添五色 지는 노을은 여러 빛으로 수놓아
欲補舜裳衣 미인의 의상을 꾸미려 하네
林億齡, 「錦城杳靄」

임억령이 금성산에 낀 안개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금성산은 나주의 진산으로 동으로 광주의 무등산을 남으로는 영암의 월출산을 마주보고 있으며 면앙정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羅州攷」에서 金克己의 詞인 江南樂 을 소개하였는데, “신령스러운 멧부리 매우 높다. 깊숙한 골짜기에 호랑이가 일찍이 돌을 차고 갔고, 옛 못에는 용이

36) 『新增東國輿地勝覽』, 「潭陽都護府」條.

37) 趙麒永,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아세아문화사, 1994, 40쪽.

38) 『新增東國輿地勝覽』, 「珍原縣」條.

39) 박은숙, 『16세기 湖南 漢詩 研究』, 월인, 2004, 80쪽.

또한 구슬을 안고 조는데, 달밤에는 못 신선이 내려온다. 매우 높아 하늘과의 거리가 겨우 一握이다. 솔숲질 저녁 종소리 깊은 골짜기에 전해지고, 버드나무 마을 쓸쓸한 방앗소리 외로운 연기 너머에서 들리는데, 鳥道가 위로 꾸불꾸불 이어졌네.”⁴⁰⁾라고 하여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기구는 면양정에서 금성산과 거리를 짐작하게 할 수 있도록 특 트인 들 멀리 금성산이 보인다. 승구는 멀리 바라보이는 금성산의 아름다움을 구름이 일었다 흩어졌다 반복하면서 자세히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전구에서 화자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여 지는 해에 반사된 구름을 비단에 수놓은 것같은 모습으로 전이 되고, 이것은 결구에서 미인의 의상을 연상한다. 미인은 순임금과 같은 훌륭한 성군을 말한다. 그를 위해 옷을 지으려 하는 자세를 암시하고 있음은 석천의 삶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이 시는 화중유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그림은 화려함보다는 소박함 속에서 한적함을 느낄 수 있다.

임억령에게 있어서 자연은 단순한 원상이나 친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본질을 자연과의 화합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자유와 조화의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자연과 화합하는 정신적 자유를 희망했던 석천의 시는 짧은 시절에서 노경에 이르기까지 景과 情이 합일되어 함축과 여운을 나타내는 자연시가 주류를 이룬다.⁴¹⁾ 이러한 임억령의 자연경물의 미감이 이 시에서도 그대로 형상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縹緗層巒綺戶前 아스라한 산봉우리 문 앞에 수놓고
萬株蒼鬣拂雲煙 만 그루 푸른 갈기 운무를 쓸어주네.
人間濯熱知何處 인간세상 더위 씻는데 어딘지 알겠네

40) 『新增東國輿地勝覽』, 「羅州牧」, “金克己 詞江南樂 靈嶽莫高焉 幽谷虎曾跑石去 古湫龍亦抱珠眠 月夜降群仙 高不極一握去青天 松寺晚鐘傳絕壑 柳村寒杵隔孤烟 鳥道上鉤連”

41) 박은숙, 앞의 책, 258쪽.

臥聽濤聲落半天 공중에서 떨어지는 파도소릴 누워 들으니
朴淳, 「夢仙蒼松」

박순이 몽선산의 푸른 소나무 숲을 보고 그 아름다움과 서늘한 느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몽선산은 담양의 서쪽에 있는데, 삼인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몽항쟁 때 여인들이 절벽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는 슬픈 전설과 이성계와 관련된 전설이 내려오는 산이기도 하다.

기구는 면양정에서 바라다 보이는 몽선산의 아름다움을, 승구는 그 아름다움이 푸른 소나무에서 이는 운무의 변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승구에서는 ‘蒼鬣’과 ‘雲煙’은 색채감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푸른색과 흰색의 조화로움을 추구하여 아름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전·결구에선 승구의 운무 흩날림을 바로 바람 때문으로 연상하게 하고, 시원한 바람 소리를 듣게 하여 청량감을 느끼며 한적함도 아울러 느끼게 한다. 이처럼 박순이 추구한 자연은 단순히 대상의 완물로써가 아니라, 덧칠하지 않은 자연은 바로 사암이 추구했던 세계인데, 이 시에서도 아울러 물외의 세계를 느끼게 한다.

자연경물이 글감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시를 창작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으나, 그들에게 자연은 항상 삶의 일부였고, 그래서 그들은 자연경물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지 시로 승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아름다움을 덧칠하는 묘사에 뛰어나거나 그렇다고 도학자들의 시처럼 理趣를 읊어 삶의 이치를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興象을 통해 표출된 자연은 그들의 삶의 일부이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을 통해 청아함을 느낄 수 있는 시를 썼던 것이다. 그들은 산수자연에 대해 자신들도 하나의 경물로 여기고 있으며, 산수와 자연과 인간이라는 공간 속으로 몰입하여 합일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시의 표출이 ‘閒美清適’의 풍격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조선조 16세기의 호남공간은 누정문학으로 대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전남 담양은 기묘사화 이후에 치사한 선비들이 축실한 누정은 면양정, 송강정, 식영정, 서하당, 환벽당, 취가정, 풍암정 등과 아울러 원림으로 유명한 소쇄원 등 그 수가 대단히 많다. 이러한 공간은 호남가단을 형성하였는데, 면양정가단과 성산가단으로 대별된다.

필자가 본고에서 논의했던 면양정삼십영은 송순의 ‘면양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단에서 창작된 누정집경시이다. 이 시는 현재 조사된 것으로 김인후, 고경명, 임억령의 오언절구와 박순의 칠언절구, 양대박의 오언율시와 칠언율시를 순차적으로 배열한 시, 이홍남의 오언절구 등 여섯 명의 작품이 전해진다. 이들 중에서 당대 호남의 시단을 영도했던 김인후, 고경명, 임억령, 박순의 작품을 창작 배경과 자연경물의 미감을 살펴보았다.

면양정삼십영의 최초 음영자는 김인후로, 그는 스승인 송순의 ‘면양정’에서 사방으로 바라다 보이는 30개 자연경물을 설정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30개 경물제는 송순의 「면양정장가」에서 의도했던 자연경물의 수용이었다. 이들의 음영 시기는 대략 1553년 송순의 면양정 개축 이후인데, 김인후, 임억령, 고경명, 박순의 순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면양정삼십영은 일반적인 누정집경시의 성격과 달리 위대한 시인인 송순에 대한 흠모에서 발로되었으며 ‘奉慕’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자연경물을 시로 형상화한 미감을 보면, 그들은 면양정의 주위의 자연경물을 꿰뚫어 보았으나 隱求를 통해 溫柔敦厚한 풍격을 표출하지 않았다. 즉 자연경물은 그들이 갖는 삶의 세계에 대한 보완물이면서도 섬교한 묘사로 형상화하여 시로 표현하는 중요한 소재였다. 이것은 시인 앞에 펼쳐져 있는 즉물적 아름다움을 의도적이기보다는 생활화된 내면의 표출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담백한 필치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물을 묘사하면서

자연미의 아름다움을 통해 마음의 평화로움을 추구한 ‘閒美清適’의 풍격을 표출하고 있다.

「면양정삼십영」은 16세기 호남문학 공간으로 인식된 담양의 누정가단 시인들의 문학적 시승관계와 성향을 유추할 수 있다. 당대 詩名으로 이름을 날려 호남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일컬어진 임억령, 김인후, 박순, 고경명 등은 송순이라는 한 축을 통해서 문학적 성향을 형성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들은 문학적 동지이며 스승인 송순의 자연경물 미감 인식과 상당부분 케를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경물관은 唐詩的 특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16세기 호남공간은 당시풍이 성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高敬命, 『霧峯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42).
 古典刊行會, 『新增東國輿地勝覽』, 書景文化社, 1994.
 金麟厚, 『河西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245).
 奇大升, 『高峰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40).
 梁大樸, 『梁大司馬實記』(국립도서관본).
 _____, 『靑溪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125).
 朴淳, 『思菴集』(경인문화사간, 한국역대문집총서 201).
 宋純, 『俛仰集』(국립도서관본).
 李洪男, 『汲古遺稿』(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속 2).
 林億齡, 『石川詩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27).
 _____, 『石川集』, 麗江出版社.
 박은숙, 『16세기 湖南 漢詩 研究』, 월인, 2004.
 朴俊圭,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박준규·최한선, 『달관과 관용의 공간 면양정』, 태학사, 2000.
 徐復觀(권덕주 역), 『중국어예술정신』, 동문선, 1990.

- 王國維, 『校注人間詞話』, 中華書局, 2004.
- 이강로의 2인,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시인사, 1987.
- 李珣(기태환역주), 『정언모선』, 보고사, 1999.
- 이종진, 『면앙정 송순 연구』, 개문사, 1987.
- 趙麒永,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아세아문화사, 1994.
- _____, 『河西詩學과 湖南詩壇』, 國學資料院, 1995.
- 최진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출판부, 1986.
- 하서출판기념회, 『하서김인후의 문학과 사상』(1·2집).
- 姜熙悅, 「題詠詩『侏仰亭 30詠』研究」, 水原大 석사학위논문, 1995.
- 金起林, 「16세기 호남시인들의 산수시 고찰」, 『東洋古典研究』 Vol.7, 東洋古典學會, 1996.
- 金炳國, 「한미정적의 미적 특질-『精言妙選』 소재 한시를 대상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 侏仰亭宋純研究全國學術發表大會 特輯號, 『古詩歌研究』 제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 朴秉益, 「思菴 朴淳의 唐詩風 受容과 展開樣相」, 『韓國漢詩研究』 14집, 한국한시학회, 2006.
- 이종묵, 「山水와 生態와 文學」, 『韓國漢文學研究』 37집, 韓國漢文學會, 2006.
- 鄭載喆, 「『精言妙選』의 사유체계 및 심미의식」, 『韓國漢文學研究』 34輯, 한국한문학회, 2004.
- 崔敬桓, 「樓亭集景詩의 장르상의 특성과 作詩 原理」, 『釜山漢文學研究』 16호, 부산한문학회, 2002.
- _____, 「樓亭集景詩의 창작동기와 누정의 공간적 특성」, 『동양한문학연구』 제22집, 동양한문학회, 2006.
-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석천 임억령의 생애와 사상』, 광주광역시, 1992.
- _____, 『제봉의 사상과 구국정신』, 광주광역시, 1996.
- _____,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광주광역시, 1995.

〈투고일 : 2007. 12. 31. 심사일 : 2008. 1. 16. 심사완료일 : 2008. 2. 11.〉

〈Abstract〉

Thirty pieces of poetry at Myeonangjeong and admiration for natural features

-On the basis of Kim Inhu, Go Gyeongmyeong, Im Eoklyeong, and Park Sun

Park, Byung-ik

Thirty pieces of poetry at Myeonangjeong is the poems about beautiful natural features from a pavilion, Song Sun's Myeonangjeong. It includes the works of Kim Inhu, Go Gyeongmyeong, Im Eoklyeong, Park Sun, Yang Daebak, and Lee Hongnam, and the writings of the former four writers are written in Myeonangjip. I place an emphasis on the background of composing poems and admiration for beautiful scenery in the writings of the writers in Myeonangjip.

Kim Inhu first recited Thirty pieces of poetry at Myeonangjeong, and he wrote poems on thirty natural features around Myeonangjeong. These thirty natural features were the same as those of Myeonangjeongjangga written by Song Sun. It is thought that Kim Inhu, Im Eoklyeong, Go Gyeongmyeong, and Park Sun composed poems one after another after rebuilding Myeonangjeong. Unlike other poems about beautiful natural features from a pavilion, they wrote those poems which were

dedicated to Song Sun.

Natural features in Thirty pieces of poetry at Myeonangjeong are not only complementary goods for their lives but also important themes of their works created by depicting them delicately. Therefore, they sublimated internal beauty into poems by describing the natural features around Myeonangjeong realistically. In other words, Thirty pieces of poetry at Myeonangjeong is an elegant work seeking the internal truth by depicting the beauty of natural features round about.

Key words : Myeonangjeong(俛仰亭), Song Sun, Kim Inhu, Go Gyeongmyeong, Im Eoklyeong, Park Sun, natural features(自然景物), The poems about scenery viewed from a pavilion(樓亭集景詩), Thirty pieces of poetry at Myeonangjeong(俛仰亭三十詠),